

멀리서 바라본 이대학보의 미래

From 편집국

박채원
편집국장



안녕하세요. 이대학보입니다. 어느새 종강이 3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쉬어야 할 때를 알리듯 밖에는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저는 이대학보 다큐멘터리를 촬영했습니다.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 한 켠에 가지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대학생활의 2년을 집결한 이대학보 자체에 조명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생각나 실천에 옮기게 됐죠.

이대학보 다큐멘터리 촬영의 최대 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다큐멘터리의 주제로 잡았던 뉴미디어 적응기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집중해서 학보 일을 해야 하는 시간과 촬영을 해야 하는 시간이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1584호 프롬편집국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학보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작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상반기 발행 동안 매일 기사 마감을 하며 빠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는 급진적인 변화를 잠시 늦추게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방향 역시 바뀌어야 했습니다.

일해야 하는 시간이 곧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농칠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매주 재활영을 하고 추가촬영이 계속됐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당사자로서 또 제 삼 자로서 학보를 관찰하는 일은 즐거움이자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희극과 비극을 오가며 보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본 적 없던 기자 개개인의 모습을 관찰하는 일은 꽤나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학보 할 일로 가득 찬 다이어리를 지워가는 모습, 타닥타닥 타자를 재빠르게 두드리는 손가락, 새벽 3시, 4시에 다다라 기사를 읽고 다시 시작하는 기자들의 모습까지. 저의 모습이면서 이대학보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대학보에 대한 기자들의 사뭇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대학보가 어떤 매체가 되길 원하는지, 보다 나은 언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말에 기자들의 진심 어린 답변은 이대학보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기자들은 하나같이 독자와 더욱 가까워지는, 독자가 알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대학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내딛은 큰 발걸음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도약을 꿈꾸는 모습은 마지막 발행을 앞둔 저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번 1594호는 이번 학기 마지막 발행호이자 저와 제 동기들에게는 학보에서의 마지막 신문입니다. 마지막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아쉬운 마음이 불어나기도, 밤샘을 하면 그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대학보에 대한 애정만큼은 그대로일 것은 확실합니다.

이대학보가 언제나처럼, 또 더욱 발전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언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론광장

번아웃 상태인 당신에게

저번 학기 닳을 정도로 많이 썼던 '번아웃(Burn out)'이라는 용어는 원래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발사된 로켓이 가진 연료가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대로 날아가는 상태를 뜻한다. 같은 속도로 날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로켓에 연료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곧 로켓의 속도는 줄고, 결국 추락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고등학교 3년을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렸다. 합격한 후, 결국엔 해냈다는 뿌듯함은 동시에 목표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을 가져다주었다. 미친 듯이 이루고 싶었고, 이루게 된다면 그 외에 바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 다짐했을 정도로 간절했던 목표의 달성은 생각보다 더욱이 허무했다.

허무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입학한 대학에선 나만 빼고 모두가 빛나 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확신을 하고, 꿈꿔왔던 언론인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함이 늘

나를 따라다녔다.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목표에 계속 도전하며 성공과 실패를 마음껏 경험하는 데 반해 나의 목표는 흔들리고, 사라지니 속이 막힌 듯 답답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항상 좌절이 함께했다. 특히, 사람들이 흔히 우스갯소리로 '사망년'이라 부르는 대학교 3학년의 생활은 단 한 번도 안정적이지 못했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내 전체가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했으니까.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능력과 체력의 한계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었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남들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모두 앞을 보며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건 사치인 것만 같아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었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미련은 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여러 개의 공모전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했다. 자다 가도 몇 번씩 가위에 눌리고, 불안함에 심장이 빨리 뛰어 잠을 이루지 못

했던 때도 있었다.

이제 나는 나의 한계를 조금씩 인정하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준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애매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비로소 인지하기 시작했다. 발전의 여부를 타인에 기준점으로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나'에 기준을 두고 바라보기로 했다. 또한 진로라는 영역에 한정짓던 과거와는 달리, 사소한 일상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발전했음에 마음껏 행복하기로 다짐했다.

우리는 아직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인 청춘이다. 너무나 낭만적이라 햇웃음이 나오는 말이겠지만 마음만이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파묻히기보다 지금의 당신에게 더 집중하고자 다짐해보는 것은 어떨까.

끝으로 이 글을 빌려, 2년 동안 반복되었던 번아웃을 견디고 항상 함께해준, 마지막 마감을 마친 나의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신단미(사회·17)

Z의 시선

Z세대는 새로운(NEW) 뉴스를 원한다

'구독하는 신문이 있는가?', '즐겨보는 뉴스 채널은 어떤가?', '관심 있는 뉴스는 무엇인가?', '뉴스를 신뢰하는가?',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설문조사처럼 느껴지는 이 다섯 가지의 질문을 마주하고 마음속으로 어떤 답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언론은 Z세대인 당신의 답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질문에 모두 답했을 수도, 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스스로 사회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작은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 건 언론이지 Z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에저리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2019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뉴스가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에 반대하는 청소년이 30%, 모르겠다는 청소년이 50%라고 말했다. 뉴스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Z세대가 80%에 이른다는 것이다. '뉴스 효능감'이 낮은 80%를 꾸짖고 싶지 않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

의 능동성을 드러낸 셈이다. 언론은 읽을 만한 뉴스를 가져오라는 Z세대의 주문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다.

뉴스의 스토리텔링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뉴스는 기자의 일방적인 설명만이 이어졌다.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가까이 제 공해주겠다는 엘리트 의식은 점차 시민들에게 외면받았다. 어려운 뉴스일수록 쉽게 돌아가야 한다. Z세대는 <스브스뉴스>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뉴스 형식을 선택한다. 흥미 기반의 압축적 뉴스 콘텐츠에서부터, IT 기술을 포용한 탐사보도까지 다변화가 필요하다.

뉴스를 담은 그릇이 커져야 한다. Z세대 에겐 A부터 Z까지 모두 뉴스다. A, B, C에 해당하는 정치·경제·사회 뉴스만을 보지 않는다. 이들에게엔 페미니즘도, 성 소수자 인권도, 동물권도 뉴스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Z세대는 모든 뉴스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 사회를 보는 Z세대의 시각은 다채로워졌다. ABC만을 전하는 언론은 선택받지 못한다. 언론은 새로운 시각으로 Z세대에 '유의미'한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다!" Z세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차세대 언론, <뉴닉(NEW NEEK)>의 캐치프레이즈다. 뉴닉은 권위적인 뉴스에게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외됐던 Z세대의 반문을 파고 들고 있다. 일상의 대화처럼 친근하게 시사 이슈를 전달하는 시사메일링 서비스로 독자에게 다가간다. 지금까지의 기성 언론과 달리 뉴닉은 Z세대를 적극적인 뉴스 수용자로 여기는 것이다. 이들은 Z세대의 언어부터 사고방식,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소비 패턴을 끊임없이 닦아가고자 한다.

자, 그럼 이제 주사위는 다시 우리 Z세대에게 돌아왔다. 우리를 위한 뉴스가 준비됐다면, 여러분은 이를 가까이 소비할 준비가 됐는가? 매일의 뉴스가 우리를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Z세대도 언론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뉴스가 볼 만하다', '이런 뉴스는 옳지 못하다', '이런 뉴스는 왜 나오지 않느냐' 등 뉴스에 대해 더 예의주시할 때다

김서영(커미·15)

상록탑

'우라카이' 하지 않은 2년



이수빈
편집부국장

지난주 토익을 봤다. 나오면서 헛웃음이 '깹깹' 나왔다. 시간이 모자랐다. 영어 공부를 한 시간보다 '토의 잘 보는 팁'을 찾아본 시간이 더 많으니 그러하지. 아마 목표 점수를 위해서는 시험을 다시 봐야 할 것 같다. 요행을 바라다가 망한 꼴이다.

학보사 들어오기 전 내 모습이 딱 어려웠다. 번역기 사용해 영어 에세이 쓰고 좋은 점수 받기를 바랐고, 수업 때 졸고 시험 전날 족보 보면서 A+이 나오기를 바랐다. 결과는 참으로 썼다. 요행은 통하지 않았다. 아직도 새내기 시절 망친 학점을 복구하고 있다.

새내기 막바지, 학보사에 들어왔다. 첫 기획안을 쓰며 내 머리카락을 뽐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엽다. 가만히 앉아 기삿거리를 생각하니 당연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나 싶다. 하지만 그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나를 자책했다. 첫 회의를 마치고 부국장님께 말했다. '저 학보사 못하겠어요... 나가면 안 될까요?' 그때 붙잡아 준 부국장님께 참 감사하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갔고, 나는 부국장으로서 퇴임한다.

4학기 동안 80개의 기사를 썼다. 한 주 한 주를 허덕이며 보냈다. 욕심은 또 많아서 재밌는 취재거리가 보이면 바로 달려갔다. 그러다가 기사를 마감하는 날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후회했다. 솔직히 모든 기사를 열심히 취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주는 빨빨거리며 취재했지만, 때로는 '적당히', '기사 쓸 정도로만' 취재했다. 이 때문에 월요일 신문이 나오면 너무 뿌듯해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도, 신문을 모두 찢고 싶을 정도로 민망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기사는 정확했다. 내가 취재를 열심히 했는지, 대중했는지 투명하게 다 보였었다.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

는 과정은 요행을 부릴 수 없었다. 그렇게 내 성격은 조금씩 변했다. 기획안을 내기 위해 취재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게는 성격을 개조하는 큰일이었다.

취재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다름이 아니라'를 입에 붙이고 살았다. 취재원을 구하기 위해 토티에서 처음 본 사람, 인스타로만 아는 사이에에게까지 연락했다. 부탁을 정말 못하는 성격이라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욕도 참 많이 먹었다. 역명의 쪽지를 보냈다가 '왜 연락하느냐' 대뜸 화를 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았다가 사이버 취급을 받은 적도 있다. 수업도 많이 빠지고 인터뷰하러 가거나, 취재 전화를 받았다. 엄마는 내게 "기자이기 전에 학생"이라고 매번 말했지만 당장 나는 기사를 마감해야 했다.

'우라카이'를 하지 마라. 최근 알게 된 기자의 상태 메시지였다. 우라카이는 기자들의 은어로,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적당히 바꿔 자신의 기사로 만드는 행위다. 상태 메시지를 보니 내심 2년의 생활이 뿌듯해진다. 학보사 기사를 하며 단언컨대, 우라카이를 한 적이 없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귀찮지만 소중한 단계 팩트 체크 데스크(Fact Checking Desk · FCD)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FCD를 끝내지 않으면 완고를 하고도 면에 기사를 실는 '공정 과정'에 넘어갈 수 없었다.

'열심히' 취재하기.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다. 기획안을 고민만 했던 나는 학보사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지만, 학보사가 끝날 무렵 생각해 보니 이는 내게 너무나 귀중한 자양분이 됐다.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끝날 무렵이 되니 다시 이전의 기미가 슬그머니 보이고 있다. 토익 시험을 보고 나온 뒤 아차 싶었다. 그래서 경계하고 있다. 요즘 매일 기출 문제를 푸는 중이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학보사를 나가도 나는 계속 취재하고 싶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쓰고 싶다. 모두 기대하시라. 제 바이어라인은 이대학보가 아니라도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주의 책

「혼자 보는 미술관 : 나만의 감각으로 명작과 마주하는 시간」

오시안 워드 지음,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9



이 책은 20세기 이전의 위대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명화에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고전 미술 가이드입니다. 저자는 나만의 시선으로 고전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10단계로 이루어진 'TABULA RASA'를 제시합니다. 작품과 마주하는 시간, 작품과 나와의 관계, 작품을 이루는 배경,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해, 그리고 다시 보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면 마침내 고정된 틀을 깨고 낯선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리듬, 비유, 구도, 분위기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타블라 라사'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상태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철학 사조 중 하나인 인식론에서 막 태어난 어린아이의 마음 상태를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르고 때문에 더 잘 보이고, 낯설어서 더 재미있으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명작이 주는 아름다움을 오히려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명작이 주는 특별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3층 일반자료실 750.118 W215L현